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20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기후위기 대비 생산구조 혁신 시급하다-2면	-	제주신문
○	월동채소 값 하락... 농민의 한숨-1면	-	제주일보
○	“농업도 디지털” ... 생산체계 바뀌나-2면	-	한라일보
○	월동채소 가공 포럼 만들자-14면	-	제민일보
○	“피로 해소 ‘치유농업’ 이 답이다” -2면	-	한라일보
○	맹추위에도 수확 한창-4면	-	뉴제주일보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0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

<p>▲양파 △웃거름 1차 시비=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p> <p>▲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p>	<p>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p> <p>▲양채류 △나방류 예찰 및 방제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유의</p> <p>▲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p>	<p>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p> <p>▲월동무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나방류 예찰 및 방제</p> <p>▲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p>
--	---	---

12.20. 뉴제주일보 13

(제주신문: 2023년 12월 20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2023-51호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
- 양채류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월동무
 -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 나방류 예찰 및 방제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 2024. 1. 15.

- 신청대상 :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20. 제주신문 6

(제주일보: 2023년 12월 20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양파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및 적용약제 방제

▲양채류 △나방류 예찰 및 방제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 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월동무 △월동 후 수확 예정 포장은 습해관리 철저 △나방류 예찰 및 방제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 제 △2024년 1월 15일(월)까지 △신청 대상=2024년 1월 15일(월)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신청 장소=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20.
제주일보 11

(제주신문: 2023년 12월 20일)

○ 기후위기 대비 생산구조 혁신 시급하다-2면

기후위기 대비 생산구조 혁신 시급하다

기온 상승과 잦은 폭우·폭설로 생태계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제시한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온도가 3도까지 오를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세계 저지대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클 지역에 제주가 포함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구체적인 분석이어서 충격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원-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 경제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강수량이 1m(100mm) 증가할 경우 제주지역의 1인당 총생산액(GRDP)은 3.3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예상 감소폭이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2-20.는 즉시 주 소득원인 농업·수산업·어업 등의 피해 대비에 나

서야 한다. 이미 잦은 폭우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때그때 재파종 등 임기응변식 대처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경지 배수로 시설을 완비하고, 물폭탄에 견딜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각종 농작물의 운실 재배 비율을 높이는 것도 기상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 앞선 농업기술과 다양한 작물 개발로 생산구조를 혁신하면 기후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을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될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면 바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제주는 농지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자연관광지이다. 도민 생존은 물론 소중한 관광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혁신을 통한 농업 발전이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다. 더 늦기 전에 농업을 포함한 기후관련 산업의 생산구조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일보: 2023년 12월 20일)

○ 월동채소 값 하락... 농민의 한숨-1면

월동채소 값 하락...농민의 한숨

당근 20kg 1만9129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비해 반토막
(4만2346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분석

월동무 값도...물량 조정 필요

이달 본격 출하를 맞은 제주 대표 월동채소인 무·당근 가격이 하락해 농가와 농협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에 힘을 쏟고 있다.

19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제주산 월동무 8kg당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898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930원보다 24.7% 하락했다. 평년 가격(1만1551원)과 비교해서도 22.1% 수준이다.

제주일보 4면이 상품 1상자 가격 역시 전년도 4만2346원의 반토막 수준인 1만9129원으로 떨어졌다. 평년 가격 3만577원에 비해서도 37.4% 하락

한 것이다.

양배추 상품 8kg들이 1망의 가격은 5858원으로 전년(5786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로콜리는 8kg상자 기준 2만2902원으로 전년(2만264원)보다 13% 높지만, 예년 2만4853원보다는 7.9%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높아 무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를 많이 재배한다. 이 채소들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출하되며 도내 농가의 연간 소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생육 시기인 8~9월 큰 태풍 피해가 없었던 덕분에 작황이 좋아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며 풍년을 맞았다. 재배 물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흉수 출하가 이어질 경우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만큼 판로 확대와 물량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농협은 겨울채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도내 15개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산지 가격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가격은 월동무 20kg들이 1상자 8000원, 세척 당근 소포장 1봉 1900원, 소포장 세척 당근 20kg들이 1상자 2만8500원, 양배추 8kg들이 1망 4000원, 브로콜리 1개 소포장 900원 등이다. 판매 물량은 월동무 27t, 당근 7t, 양배추 10t, 브로콜리 1t 등 모두 45t이다. 최근 고물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철을 맞은 신선한 채소를 저렴히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진주리 기자

(한라일보: 2023년 12월 20일)

○ “농업도 디지털” ... 생산체계 바뀌나-2면

“농업도 디지털”... 생산체계 바뀌나

제주도, 농산업 대전환 목표로 5년간 3조원 투입
농촌 재구조화·품목별 생산출하조직 육성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디지털 농업 생산체계로의 전환 및 미래농산업 기반 구축,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안심농산물 공급 등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2층 사 자유실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4년~2028년 12.20.까지의 비전과 전략을 담고 한라일보 2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강력한 제주농업, 빛나는 제주농촌, 행복한 제주농업인'이라는 비전과 '제주농산업 시스템 대전환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9대 전략과 21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9대 전략은 제주농업경영구조 전환 및 소득안정 강화 ▷제주농업 조건불리 극복 ▷디지털 농업 생산체계로의 전환 및 미래농산업 기반 구축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안심 농산물 공급 ▷제주 농촌 가치강화 및 공동체 활력 증진 ▷기후·환경

변화 대응 농업생산체계 전환 ▷제주농업 자원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 ▷농업경영핵심주체 및 전문농기업 육성 ▷농산물 수급 자원관리 및 농정 핵심주체 육성이다.

21개 중점과제는 농촌구조 재구조화 및 생활권 강화 지원, 제주 농업우수 및 토양자원 관리체계 구축, 제주농업 핵심경영체 선정 및 육성, 농촌마을 농업경영 공동체 활력 강화, 저탄소 농업 생산체계 전환, 제주 농업기반 애그리 비즈니스 육성, 제주 농산물 품목별 생산출하 자율 관리 연합조직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농업분야 총 예산인 2조2313억원 대비 43% 증가한 3조1930억원(국비 1조1432억원, 지방비 2조498억원)을 향후 5

년간 투자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제주자치도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결과를 종합해 올해 말까지 최종계획안을 마련한 후 제주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농업인단체협의회, 품목연합회, 농협, 읍면 마을이장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매년 실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민일보: 2023년 12월 20일)

○ 월동채소 가공 포럼 만들자-14면

월동채소 가공 포럼 만들자

시론담론



김기욱
비상임 논설위원

■ 진단 통해 혁신방안 찾아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 진단을 지속해나가면서 혁신방안을 찾을 때 우리 제주의 가치와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 농가소득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12.20.
제민일보 14

제주의 농촌은 겨울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 초가을에 정성스럽게 가꾼 월동채소를 바라보는 농가들은 걱정이 많다. 일부 농가는 일찍이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것인지 자란 월동무 발을 노타리 치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농촌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

올해와 같은 풍년의 역설은 2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제주 월동채소 산업의 현실이며, 올해는 특히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제주 월동채소 전 작목들이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많은 농촌경제 정책가들은 농가 스스로 협동하려는 인식을 키워야 하고, 유능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유통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풍년의 역설은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이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몇가지 제안을 하면, 첫째, 가격예보제를 실시하자. 올해도 제주 월동채소 재배면적, 생산량 등 예측은 6~7월 정도에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감축 정책으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을 유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하던 감축량과 생산량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는 것처럼 제주 월동채소 생산량에 따른 가격예보제를 실시하여 농가들이 자율 감축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게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격예보제에 대해 참여농가가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A작목에서 B작목 파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갖추어 진다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닐까 한다.

둘째, 월동채소 가공제품 개발에 투자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 가정편의식 등에서 채소를 원료로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제주가 대표하는 채소로 다양한 식품으로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다. K-food 바람에도 made in jeju 식품은 감귤과 수산물 관련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뚜렷한 상품을 선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어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이용한 퓨전식품 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다. 20~30대에 맞는 식품, 청장년층과 노약자를 위한 실버 및 메디

신 푸드개발에 투자가 필요할 때다.

셋째, 월동채소가공 포럼 개최를 제안한다. 제주월동 채소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가공기업, 재배농가,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한 포럼에서 정책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혁신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 제주는 매우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판로를 외부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농민들로서는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물류, 관련 소모품, 그리고 최근에는 인력마저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제주 농촌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월동채소 소비문화의 진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농가재배, 판로개척, 가공기술 확보 및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현안 문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국내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 진단을 지속해나가면서 혁신방안을 찾을 때 우리 제주의 가치와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 농가소득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수석연구원>

(한라일보: 2023년 12월 20일)

○ “피로 해소 ‘치유농업’ 이 답이다” -2면

문인로에서

“피로 해소 ‘치유농업’ 이 답이다”

제주는 깨끗한 공기와 물, 푸른 산림 등 풍부한 자연환경은 국민들에게 건강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치유산업의 최적지로 판단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이다. 불명예스럽게도 OECD 1위다. 게다가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은 OECD 38개국 중 36위로 매우 낮다. 삶의 만족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바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 신체적 질환 등에 시달리며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 치유산업 ‘최적지’ 위기 농업, 방향 전환을 치유농업 지속가능성 ↑

우리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정부차원에서 ‘치유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산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서적 불안감 등을 완화시키는 치료 등을 포함한다.

치유농업 활동을 통한 치료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한 ‘식량작물 이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분석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98.1에서 78.8로 19.3p 감소했고, 평균 피로도도 90.6에서 78.9로 11.7p

↓12.20. 치유농업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박 호 형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유농업은 1994년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작물의 치유 효과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이 태동했다. 2013년 치유농업의 개념을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립하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계속 검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3월 24일 국회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업은 최근 고령화, 인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치유농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업인들은 치유농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제주는 치유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는 치유농업이 제주의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0일)

○ 맹추위에도 수확 한창-4면



12.20.
뉴제주일보 4

맹추위에도 수확 한창 19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브로콜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수확에 바쁜 손을 놀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uilbo.net